

초접전 후보 24시 나주시장



임성훈 민주당 나주시장후보가 27일 나주시내 상가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 한 표를 부탁하고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향득 무소속 나주시장후보가 27일 나주시내 상가를 돌면서 만난 상인에게 “장사 잘 되느냐”고 인사하고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제시장 뽑아 달라” 악수 공세

■ 민주당 임성훈

27일 새벽 6시, 나주 인력 거래소를 찾은 민주당 임성훈 나주시장 후보는 “시장이 된다면 임기동안 일자리 1만개를 창출, 비정규직의 실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길은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노력해보자”고 호소하며 악수를 청해, 호응을 받았다.

곧이어 매일시장 인근 상가를 방문한 임 후보는,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 “경제를 살려 나주를 호남의 대표하는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침 7시부터 이어진 부영 아파트 인근의 출근 인사에서 임 후보는 ‘준비된 경제시장’임을 강조하며 ‘나주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며 출근길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한 시간 동안의 출근 인사를 마친 임 후보는 나주 축산물공장을 방문, 임직원들로부터 부지 문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9시30분, 나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유세에 나선 임 후보는 “나주는 발전과 불라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한 뒤 “시민들과 함께 나주를 경제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주장,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어 세지면 동창 5일장 유세에서 임 후보는 “농축산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사회적

노안 버섯공장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일자리 1만개 창출 비정규직 줄이겠다” 밤늦게 캠프들러 “초심으로 가자” 다짐

지 정책을 대폭 확충,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 소외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임 후보는 5일장에서 만난 상가 주민들에게 “재래시장은 물론 5일장의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시설 현대화와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며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세혈관인 재래시장과 5일장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상인 김모(45)씨는 “임 후보는 인물도 좋은데다 경제전문가라는 점에서 신뢰가 간다”며 “나주가 변화해야 할 시점에 적임자가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상인들이 제공한 떡과 음료수로 아침을 겸한 점심식사를 해결한 임 후보는 곧바로 노안 버섯공장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오후 1시30분, 나주 남교문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의 이미경 사무총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가 나서 임 후보를 띄웠다. 박준

영 전남지사 후보는 “무소속을 지지하는 것은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며 “준비된 경제시장인 임성훈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임 후보는 막판 관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부시장에 대한 거부감에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더해지면서 완전히 우리 쪽으로 관세가 기울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아합성 단일화와 불발 조직 동원 가능성도 없지 않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나주성당 성모의 밤 행사와 국공인 정기총회, 남평 상가 학부도 모임에 잇달아 참석한 임 후보는 “이제 나주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며 “변화와 혁신을 토대로 나주를 호남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유권자들의 손을 잡고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밤 9시 임 후보는 선거 캠프에 들러 “아직 촉매를 들기는 이르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며 참모들을 격려한 뒤, 다시 인근 상가 방문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논두렁·상가 20시간 ‘강행군’

■ 무소속 주향득

나주 세지면의 ‘동창 5일 장’이 열리는 27일 오전 10시, 세지면 입구에 들어서자 유세 차량에서 터져 나오는 로고송과 선거운동원들의 연호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야간방식이 따로 없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카랑카랑한 여성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남편 신경훈 전 나주시장을 대신해 출마한 무소속 주향득 나주시장 후보가 시장 입구에서 한참을 유세중이었다. “25년간 농민과 함께 해온 기호 7번 주향득입니다. 서민과 농민에 대한 행복정책을 해보겠습니다. 말처럼 머느리처럼 따뜻한 서민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꼭 주향득을 선택해주세요.”

주 후보는 인근 상대 후보의 유세 속에서 당차고 아무지개 유세를 펼쳤다. 이어 트로트 곡 ‘무조건’을 개사한 자신의 로고송이 유세차량에서 흘러나오자 여기에 맞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앙증(?)맞은 울동을 펼쳐 보이는 ‘팬 서비스’도 하는 열성을 보였다.

주 후보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은 사회자는 “나주의 여장부 맞죠. 나주 살림을 맡겨도 되겠죠.”라며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주 후보는 지나는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일부 청중들은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멈추고 주 후보를 격려하기도 했다. “오늘 아침에 노인장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했네. 힘내” 격려의 말에 주 후보의 얼굴이 활짝 퍼졌다.

동창 5일장·멜론 작업장 방문 농민 격려 하루 4시간 자고 100km 돌며 지지 호소 로고송 맞춰 운동원과 울동 팬 서비스도

주 후보는 막판 선거 관세를 묻는 기자 질문에 “농민과 서민이 잘 사는 민생정치와 나주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책임자”임을 강조하며 “나주시민들은 그동안 저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동지들이야. 그분들을 믿는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25년간 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통해 지지기반을 다져온 만큼 나주 유권자들의 표심을 믿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날 장터에는 나주 자치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들이 모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전 9시~10시 사이 좁은 장터에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이 집중된 탓인지 시장 내 한 상인은 “선거 때만 시끄럽지, 선거 끝나면 발길을 끊겠지?”라며 “선거공약 범위기를 달겠다. 주 후보는 지나는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주 후보는 농민과 근로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농민이 승리하는 날, 시민이 주인 되는 날을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 7시30분 영산포 선창 사거리. 이번에는 퇴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행복한 복지 나주와 서민경제 살리기, 희망의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주와 함께 해 온 진정한 서민·농민 후보를 뽑아달라.” 유세 차량에 올라 탄 주 후보는 또다시 목적을 올렸다.

목소리는 갈라질 만큼 갈라져 쉼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정치로 행복한 나주, 혁신도시로 잘사는 나주, 서민이 따뜻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나주 골 주향득을 선택해주세요.”

주 후보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루 4시간씩을 자고 20시간을 선거운동에 할애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나주시 면적이 넓은 만큼 이동거리도 하루 100km 안팎이다. 남편의 3선 도전의 꿈을 주 후보가 대신 이룰지 관심이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反 이명박 외쳐달라

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단일 목소리로 반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외쳐야 할 광주에서 민주개혁세력의 분열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줄 것을 호소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군소야당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 결렬

민주노동당 장원섭, 진보신당 윤난실,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결렬됐다.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27일 “세 후보가 지난 26일 저녁 최종 모임을 갖고 후보단일화를 논의했으나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커 결렬됐다”며 “앞으로 추가 단일화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간 이들 정당 내에서는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일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들의 반발 등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들 세 후보는 반(反) 한나라당, 비(非) 민주당 선거구도를 위해 단일화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주연, 무소속 후보들과 합동연설회

무소속 전주연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27일 무소속 광주 서구지역 출마 지방의원 후보들과 합동연설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 후보는 이날 서구 치평동 5·18 기념공원 원형광장에서 열린 서구 무소속 연대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천거한 후보가 열세를 면치 못하자 서구지역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총 동원해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며 “나라일을 맡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고작 서구 동 책임을 맡아 통장·반장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안순일 “자기 주도 학력관리시스템 구축”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27일 “6년 연속 수능 1등을 달성한 ‘실력 광주’의 명성 유지를 위해 자기주도 학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급변하는 입시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학지도가 필요하다”면서 “진학지도 전문요원을 각 학교에 배치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성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자기주도 학력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진학지도 전문요원 선발시 심화 연구 과정을 통한 인준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운태-정찬용 네거티브 선거 논란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측은 27일 “정찬용 국민참여당 후보가 강 후보를 헐뜯고 있다”며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강 후보 측 김승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 후보 측에서 선거 유세원을 통해 ‘강 후보는 당선돼도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제2의 노무현 드라마를 연출하겠다는 정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가까 노무현 정신을 팔고 다니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찬용 후보 측은 “경선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와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설명했을 뿐 네거티브는 아니다”면서 “갑작스럽게 성명서까지 내는 것을 보니 국민참여당의 지지율 상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강성종 “농어업 예산 20%까지 증액”

강성종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는 27일 신안군 안좌면에서 주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빛으로 진행되는 축제를 지양하고 농·어업 분야 예산을 7%에서 2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 김효석 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원 유세에 나선 자리에서 “농·어업을 돈버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특산물 직거래시장 개설 등 다양한 농업 발전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오섭 “칭찬받는 의회 만들겠다”

조오섭 민주당 광주시의원 후보(북구 2선거구)는 27일 “욕먹는 의회에서 칭찬받는 의회로 바꾸겠다”며 의회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이날 “제5대 광주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건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직 인사의 독립권을 확보하고 의원 자질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을 “학생들 효 교육 강화하겠다”

고영을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27일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우리나라는 예부터 경로효친을 최고의 실천덕목으로 여겼으나,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확산되면서 효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면서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수련회 중 일부를 고아원과 경로당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한편 ‘놀토’ 등을 이용한 ‘부모와 함께하는 봉사 체험’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박진표 기자 cki@kwangju.co.kr